

남녀 대학생의 피임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현영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Contraceptiv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Hyun 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대학생 238명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PASW.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피임은 대상자의 56.7%가 하였고, 피임법으로는 콘돔을 사용한 경우가 23.9%로 가장 많았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t=6.02, p=.000$),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38, p=.000$). 이에 비해 여학생은 주관적 규범의 점수가 높았고($t=-3.51, p=.000$), 피임태도에 대해서는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t=-4.21, p=.000$). 남학생은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r=0.19, p=.039$), 여학생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적을수록 피임태도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이었다($r=-0.26, p=.005$).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학생은 주관적 규범이 3.6%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여학생은 피임여부, 성교육 횟수,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25.5%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피임태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통해 피임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traceptive behavior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after receiving the written consent of 238 university students in G city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22 to November 23 in 2017.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PASW 18.0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that 56.7% of the subjects used contraceptives, and 23.9% used condoms. Male students were more exposed to sexual content than female students ($t=6.02, p=0.000$) and had an open sexual attitude ($t=5.38, p=0.000$). Female students showed high scores on subjective norms ($t=-3.51, p=0.000$) and acceptable and positive contraceptive attitudes ($t=-4.21, p=0.000$). Among factors influencing the contraceptive attitude of males, the subjective norm was 3.6%. Female students had a 25.5% influence on contraceptive attitude, contraception, sexual education frequency, and sexual content exposure. It is suggested that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ing programs be developed to form positive attitudes toward contraceptives through iterative research.

Keywords : Sexual Content Exposure, Sexual Communication, Subjective Norm, Sexual Attitude, Contraceptive Attitude

본 논문은 경운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 Young Kim(Kyungwoon Univ.)

Tel: +82-54-479-1388 email: actoduto@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 2019

Revised March 28, 2019

Accepted May 3, 2019

Published Ma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해 가면서 개개인이 성관계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성관계를 경험하는 연령도 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성관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성 경험률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201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대 미혼여성의 피임실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간 성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의 피임 실천율은 항상 피임을 한 사람은 46.7%에 그쳤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26.5%로 경험자의 절반 정도만 피임을 하는 성인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피임 실천률이 낮게 나타났다[1].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성 개방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주위에는 성을 다루는 정보매체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널려 있는 성에 대한 허용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생들의 발달과업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후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이성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에릭슨은 심리사회적으로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과업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청소년 시절에 대학입시라는 스트레스 하에 지내면서 성에 대한 가치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생이 되면서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지고 성인으로서의 자율성이 주어지지만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한 준비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성 경험률은 2010년대에는 35~45%로 보고하고 있으나[2, 3], 2018년에는 60~71%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4], 피임 실천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이다.

피임은 수태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인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피임 없이 이루어지는 성행위의 결과인 원치 않는 임신은 임신 중절과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고, 임신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여 산모나 태아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입양기관으로 자녀를 보냄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3]. 그러므로 올바른 피임실천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피임실천은 각 개인의 피임지식, 피임태도, 피임 자기

효능감, 성관련 의사소통,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7]. 그 중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의도나 피임실천이 높아진다[5, 6]. 피임태도는 피임행위에 대한 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념을 의미한다[8]. 사람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자신의 행위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15]. 마찬가지로 피임태도도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각 개인은 자신의 피임행위에 대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게 된다. 피임의 부정적인 태도는 피임행위가 성관계 시 성감을 둔화시키며, 성관계를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고, 피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숙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인 태도는 피임실천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 파트너를 배려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성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성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6]. 즉, 피임태도는 개인이 피임실천에 대해 가지는 긍정과 부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행동을 결정하는 데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하게 되므로[3, 5] 피임태도는 피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피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피임실천에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할 수 있다[8].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피임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피임지식과 피임효능감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피임지식이 높다고 하여 피임태도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많아 피임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성교육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피임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성교육 및 성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성교육 및 성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대학생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성관련 의사소통,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

- 도, 성태도, 주관적 규범, 피임태도를 파악한다.
- 2)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학생의 이성 간 성 의사소통,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성태도, 주관적 규범, 피임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학생의 피임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이나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성관련 의사소통, 주관적 규범, 성태도가 남녀 대학생들의 피임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2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38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먼저 서면화된 동의를 받은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 power program 3.1.9.2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투입변수 7개로 최소 153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는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는 Peter와 Valkenburg (2006)가 개발하고, 최명일(2009)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황신우(2013)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7]. 총 6개의 매체의 이용 정도를 측정하고, 노출정도는 한 번도 없음에서 주 3회 이상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황신우(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3.2 성관련 의사소통

성관련 의사소통은 Hutchinson과 Cooney(1998)가

모-청소년 자녀 간 성관련 의사소통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박지현과 김태현(2005)이 커플 간 성관련 의사소통 척도로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9]. 총 6개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상대와의 개방적인 성관련 의사소통을 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폐쇄적인 성관련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조승희(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1.3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증거 기준이 되는 사람이 피임행위에 대해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Frimack 등(2007)이 개발한 금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측정도구를 황신우(2013)가 피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7],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황신우(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5$ 이었고[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1.4 성태도

성태도는 성관계와 관련된 개인의 태도나 관점을 살펴 보기 위해 Hendrick과 Hendrick(1987)이 개발한 Sexual attitudes Scale(SAS)을 Hendrick과 Reich(2006)가 재구성한 Brief Sexual Attitudes Scale(BSAS)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경(2005)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0]. 총 23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정미라(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1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1.5 피임태도

피임태도는 피임행위 이행에 대해 내리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를 나타내며 Wang 등(2003)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Contraceptive Attitude Scale(CAS)를 김유진(20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1]. 총 19문항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을 의미한다. 김유진(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1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2.4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루어졌고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히 이해하고 서면화된 동의서를 작성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설문 응답에 대해 소정의 보상을 하였고, 응답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를 철회할 기회를 주었다. 응답이 완료된 총 2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후 남학생 120명, 여학생 118명으로 총 238명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ASW 18.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성관련 의사소통, 주관적 규범, 성태도, 피임태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을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성관련 특성에 따른 피임태도를 ANOVA, t-tes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4) 대학생들의 콘텐츠 노출 정도, 주관적 규범, 의사

소통, 성태도, 피임태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검증하였다.

- 5) 대학생들의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및 성격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62±1.66세로 20-22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 50.4%, 여성 49.6%를 차지하였다. 전공분야는 보건계열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월수입은 31~40만원인 경우가 29.8%로 가장 많았고, 35.7%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기독교가 18.1%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자취가 36.6%로 가장 많았고, 파트너와 동거하는 경우는 1.0%였다. 연애 경험은 89.9%가 있었으며, 1-3회 경험한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다. 성 경험이 있는 경우는 69.7%였으며, 성교 경험과 상관없이 배란을 인식하는 경우는 44.1%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상자의 성교육 횟수는 4회 이상이 55.5%로 가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첫 성교 나이는 19세 이하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첫 성교 나이는 19.18±1.86세였다. 성교 상대는 애인이 59.2%로 가장 많았고, 성관계 동기는 계획과 동의 후 한 것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임은 56.7%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법으로는 콘돔을 사용한 경우가 23.9%로 가장 많았다. 성격특과 관련된 특성에 대해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male(n=120)	female(n=118)	total(n=238)
Age	19	50(41.7)	14(11.9)	64(26.9)
	20-22	46(38.3)	102(86.4)	148(62.2)
	23-25	22(18.3)	2(1.7)	24(10.1)
	26-30	2(1.7)	0(0.00)	2(0.8)
	mean±SD	20.68±2.11	20.55±1.03	20.62±1.66
Major field	Health	33(27.5)	78(66.1)	111(46.6)
	Social safety	40(33.3)	18(15.3)	58(24.4)
	Air service	30(25.0)	17(14.4)	47(19.7)
	flight operation	17(14.2)	5(4.2)	22(9.2)
monthly income	Less than 100,000won	6(5.0)	2(1.7)	8(3.4)
	10~200,000won	14(11.7)	10(8.5)	24(10.1)
	21~300,000won	34(28.3)	34(28.8)	68(28.6)
	31~400,000won	25(20.8)	46(39.0)	71(29.8)
	More than 400,000won	41(34.2)	26(22.0)	67(28.2)

religion	Christian	21(17.5)	22(18.6)	43(18.1)
	Buddhist	14(11.7)	15(12.7)	29(12.2)
	Catholic	9(7.5)	2(1.7)	11(4.6)
	Etc.	2(1.7)	0(0.00)	2(0.8)
	none	74(61.7)	79(66.9)	153(64.3)
Housing type	Family and residence trace	28(23.3)	40(33.9)	68(28.6)
	dormitory	40(33.3)	47(39.8)	87(36.6)
	Living with a partner	47(39.2)	30(25.4)	77(32.4)
	Etc.	1(0.8)	0(0.00)	1(0.4)
		4(3.3)	1(0.8)	5(2.1)
Dating experience	None	28(23.3)	13(11.0)	41(17.2)
	1-3times	45(37.5)	58(49.2)	103(43.3)
	4-6times	23(19.2)	28(23.7)	52(21.4)
	6-8times	9(7.5)	10(8.5)	19(8.0)
	More than 9 times	15(12.5)	9(7.6)	24(10.1)
Sex experience	No	26(21.7)	46(39.0)	72(30.3)
	Yes	94(78.3)	72(61.0)	166(69.7)
Presence or absence of ovulation	Yes	42(35.0)	63(53.4)	105(44.1)
	No	78(65.0)	55(46.6)	133(55.9)
Sexual education	none	12(10.0)	4(3.4)	16(6.7)
	1times	6(5.0)	10(8.5)	16(6.7)
	2times	23(19.2)	12(10.2)	35(14.7)
	3times	21(17.5)	18(15.3)	39(16.4)
	More than 4 times	58(48.3)	74(62.7)	132(55.5)

Table 2. Sexual Experience Characteristic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χ ² (p)
		male(n=94)	female(n=72)	total(n=166)	
First sex age	under 19	56(46.7)	25(21.2)	81(34.0)	5.91 (.12)
	20-21	32(26.7)	40(33.9)	72(30.3)	
	22-23	5(4.2)	7(5.9)	12(5.0)	
	24 older	1(0.8)	0(0.0)	1(0.4)	
	mean±SD	18.76±2.05	19.74±1.41	19.18±1.86	
Sex partner	lover	75(62.5)	66(91.7)	141(59.2)	8.74 (.12)
	Close friends	9(7.5)	4(5.6)	13(5.5)	
	Colleague	3(2.5)	1(1.4)	4(1.7)	
	A person who met overnight	4(3.3)	0(0.0)	4(1.7)	
	Entertainment worker	3(2.5)	0(0.0)	3(1.3)	
	Other	0(0.0)	1(1.4)	1(0.4)	
Phase relationship motive	After planning and agreeing	40(33.3)	27(37.5)	67(28.2)	4.55 (.47)
	Unplanned and agreed	32(26.7)	33(45.8)	65(27.3)	
	The other party wants it	11(9.2)	3(4.2)	14(5.9)	
	wanted	3(2.5)	2(2.8)	5(2.1)	
	Impulsively	7(5.8)	6(8.3)	13(5.5)	
In the unclear state of judgment	1(0.8)	1(1.4)	2(0.8)		
contraception	Yes	77(64.2)	60(83.3)	137(57.6)	0.06 (.84)
	No	17(14.2)	12(16.7)	29(12.2)	
contraceptive measure	condom	62(51.7)	46(63.9)	108(45.4)	1.51 (.83)
	Oral pill	2(1.7)	1(1.4)	3(1.3)	
	Exhaustion	1(0.8)	0(0.00)	1(0.4)	

3.2 성별에 따른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성관련 의사소통, 주관적 규범, 성태도 및 피임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는 남학생이 평균 2.20±.95점이고, 여학생은 1.58±.62점으로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6.02, p=.000). 성관련 의사소통은 남학생이 2.59±1.10점으로 여학생 2.47±1.24점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규범은 여학생이 4.01±1.02점으로 남학생 3.51±1.15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51, p=.001). 성태도는 남학생이 3.04±.63점으로 여학생 2.61±.61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38, p=.000). 피임태도는 여학생이 2.85±.33점으로 남학생 2.67±.33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21, p=.000)를 보였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Sexual content exposure, Sex communication, Subjective norm, Sexual attitude and Contraceptive attitude by gender

Categories	M(SD)			t(p)
	Male (N=120)	Female (N=118)	Total (N=238)	
Sexual content exposure	2.20±.95	1.58±.62	1.89±.86	6.02 (.000)
Sex communication	2.59±1.10	2.47±1.24	2.53±1.17	0.73 (.465)
Subjective norm	3.51±1.15	4.01±1.02	3.76±1.11	-3.51 (.001)
Sexual attitude	3.04±.63	2.61±1.61	2.83±.66	5.38 (.000)
Contraceptive attitude	2.67±.33	2.85±.33	2.76±.34	-4.21 (.000)

3.3 일반적 및 성경험 관련 특성에 따른 피임태도의 차이

남학생은 학과계열에 따라 피임태도에 차이를 보였는데(F=2.76, p=.045), 보건계열 학과의 학생들의 피임태도가 2.75±.31점으로 사회안전계열 학과의 학생보다 높

게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종교(F=5.97, p=.001), 성경험 유무(F=-2.11, p=.037), 피임 여부(F=-2.11, p=.039), 성교육 횟수(F=2.75, p=.032)에 따라 피임태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천주교 신자는 다른 종교에 비해 피임태도 점수가 낮았으며(2.00±1.41점), 성경험이 있는 경우는 2.93±.35점으로 피임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피임을 하는 경우가 2.76±.38점으로 피임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성교육을 4회 이상 받은 대상자가 2.91±.21점으로 성교육을 받지 않은 여학생들보다 피임태도 점수가 높았다.

전체 대학생들은 학과계열(F=3.78, p=.011), 월수입(F=2.54, p=.040), 성경험 유무(F=-2.52, p=.012), 성교육 횟수(F=2.95, p=.021)에 따라 피임태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보건계열(2.81±.36점)이 사회안전계열보다 피임태도 점수가 높았고, 21~30만원이나 31~40만원의 월수입이 있는 학생들이 10만원 미만의 월수입을 가진 학생들(2.53±.17점)보다 피임태도의 점수가 높았다. 성경험이 있는 학생(2.89±.30점)과 4회 이상의 성교육을 받은 학생(2.77±.34점)의 피임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났다(Table 4).

Table 4. Differences in contraceptive attitud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xual Experience

Variables	Categories	Male(n=120)		Female(n=118)		Total(n=238)	
		M±SD	F or t(p)	M±SD	F or t(p)	M±SD	F or t(p)
Major field	Health(a)	2.75±.31		2.84±.38		2.81±.36	
	Social safety(b)	2.55±.34	2.76	2.84±.23	0.33	2.64±.34	3.78
	Air service	2.72±.33	(.045)*	2.90±.18	(.808)	2.79±.30	(.011)*
	flight operation	2.70±.28		2.75±.26		2.71±.27	a)b
monthly income	Less than 100,000 won(a)	2.54±.19		2.53±.15		2.53±.17	
	10~200,000 won(b)	2.51±.35	1.85	2.81±.27	1.10	2.64±.33	2.54
	21~300,000 won(c)	2.76±.35	(.123)	2.90±.27	(.361)	2.83±.32	(.040)*
	31~400,000 won(d)	2.71±.30		2.80±.42		2.77±.38	a)c,d
	More than 400,000 won(e)	2.64±.33		2.89±.24		2.73±.32	
religion	Christian(a)	2.69±.25		2.83±.25		2.76±.26	
	Buddhist(b)	2.58±.41	1.04	2.75±.41	5.97	2.67±.41	2.33
	Catholic(c)	2.75±.24	(.387)	2.00±1.41	(.001)*	2.60±.58	(.057)
	Etc.(d)	2.29±.26		0.00±.00	c(a,b,e)	2.30±.26	
	none(e)	2.68±.34		2.89±.26		2.79±.32	
Sex experience	No	2.66±.33	-0.20	2.80±.37	-2.11	2.72±.35	-2.52
	Yes	2.68±.34	(.843)	2.93±.35	(.037)*	2.89±.30	(.012)*
contraception	Yes	2.66±.31	0.16	2.76±.38	-2.11	2.71±.34	-1.22
	No	2.65±.43	(.875)	2.30±.26	(.039)*	2.79±.40	(.223)
Sexual education	none(a)	2.57±.43		2.34±.91		2.51±.56	
	1times	2.84±.20	0.71	2.90±.15	2.75	2.88±.17	2.95
	2times	2.66±.30	(.584)	2.82±.27	(.032)*	2.72±.30	(.021)*
	3times	2.69±.28		2.91±.21	a<b	2.79±.27	a<b
	More than 4 times(b)	2.66±.33		2.85±.32		2.77±.34	

3.4 변수간의 상관관계

남학생의 경우, 피임태도는 주관적 규범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19, p=.039$).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높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26, p=.005$). 즉 성관련 콘텐츠의 노출이 적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생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r=-0.26, p=.000$), 성태도($r=-0.14, p=.027$)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주관적 규범($r=0.18, p=.006$)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성관련 콘텐츠의 노출이 적을수록, 성태도가 비개방적일수록, 주관적 규범 정도가 높을수록 피임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 of Sexual content exposure, Sex communication, Subjective norm, Sexual attitude and Contraceptive attitude by gender

		Sexual content exposure	Sex communication	Subjective norm	Sexual attitude
Male (n=120)	Sexual content exposure	1			
	Sex communication	0.28(.002)**	1		
	Subjective norm	0.15(.104)	0.36(.000)**	1	
	Sexual attitude	0.44(.000)**	0.35(.000)**	0.16(.086)	1
	Contraceptive attitude	-0.15(.104)	-0.06(.513)	0.19(.039)*	0.04(.688)
Female (n=118)	Sexual content exposure	1			
	Sex communication	0.34(.000)**	1		
	Subjective norm	0.05(.577)	0.21(.022)*	1	
	Sexual attitude	0.46(.000)**	0.54(.000)**	0.22(.015)*	1
	Contraceptive attitude	-0.26(.005)**	0.06(.528)	0.06(.528)	-0.16(.076)
Total (n=238)	Sexual content exposure	1			
	Sex communication	0.29(.000)**	1		
	Subjective norm	0.02(.745)	0.27(.000)**	1	
	Sexual attitude	0.50(.000)**	0.44(.000)**	1.00(.126)	1
	Contraceptive attitude	-0.26(.000)**	-0.07(.263)	0.18(.006)**	-0.14(.027)*

** <0.001 * <0.05

3.5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피임태도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군별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대상으로 진입(Enter)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였는데 남학생은 1.903, 여학생은 2.162로 기준값 2에 가까우므로 종속변수는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가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는 1.000~1.575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회귀모형에 적합하였다.

남학생은 주관적 규범($\beta=.189, p<.05$)만이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이었고, 설명력은 3.6%였다.

여학생은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beta=-.20, p=.001$), 피임여부($\beta=.030, p=.007$), 성교육 횟수($\beta=.030, p=.007$)가 피임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적을수록, 피임을 하는 경우, 성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5%였다. 전체 대학생은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beta=-.20, p=.007$)와 주관적 규범($\beta=.15, p=.030$)이 피임태도의 영향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13.9%였다(Table 6).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들의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성교육 및 성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대학생

Table 6.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contraceptive attitude

	Variables	B	β	t	p	R2	AdjR2	F(p)	Durbin-Watson
Male (n=120)	Invariable number	2.474		25.698	.000	.036	.028	4.373 (.039)	1.903
	Subjective norm	.055	0.19	2.091	.039				
Female (n=118)	Invariable number	2.353		10.765	.000	.255	.211	5.745 (.000)	2.162
	Contraception	.290	0.30	2.78	.007				
	Sexual education	.094	0.30	2.80	.007				
	Sexual content exposure	-0.20	-0.37	-3.45	.001				
Total (n=238)	Invariable number	2.294		10.872	.000	.139	.108	4.551 (.000)	1.980
	Sexual content exposure	-0.082	-0.20	-2.735	.007				
	Subjective norm	0.045	0.15	2.182	.030				

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대상자의 56.7%가 피임 행위를 하였고, 피임법으로는 콘돔을 사용한 경우가 23.9%로 가장 많았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t=6.02, p=.000$),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38, p=.000$). 이에 비해 여학생은 주관적 규범의 점수가 높았고($t=-3.51, p=.000$), 피임태도에 대해서는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t=-4.21, p=.000$). 남학생은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r=0.19, p=.039$), 여학생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적을수록 피임태도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이었다($r=-0.26, p=.005$).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학생은 주관적 규범이 3.6%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여학생은 피임여부, 성교육 횟수,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25.5%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0.62 ± 1.66 세였으며, 69.7%가 성경험이 있었고, 평균 첫 성교 나이는 19.18 ± 1.86 세로 나타났다. 2007년 허명행 등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400명 중 42.5%, 2010년 최정현 등의 연구에서는 36.6%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는데[2, 3, 13],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대학생의 성경험 정도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임복희 등(2018)의 연구결과 63.7%와 유사하였다[4]. 그리고 첫 성경험을 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시기는 대학교 1~2학년 때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3]. 이는 고교시절 입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진 대학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개방된 성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으로 첫 성경험 많이 발생하고 성 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경험 대상자 중 56.7%가 피임을 하였고, 피임법은 콘돔 사용이 23.9%로 가장 많았다. 이는 허명행 등

(2007)의 연구에서의 89%보다 낮은 수치이며, 황신우(2013)의 연구에서의 남성 34.8%, 여성 34.4%보다 높게 나타났다[13].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차이라고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대학생이 연구대상자인 경우 피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남녀보다 대학생들이 성교육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선호하는 피임법은 콘돔 사용으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3, 4, 13].

그러나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성경험 관련 특성에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인 성 개방화로 여학생들이 가부장적인 성에 대한 사고에 벗어나 점차 남학생들과 동등한 사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t=6.02, p=.000$),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38, p=.000$). 이에 비해 여학생은 주관적 규범의 점수가 높았고($t=-3.51, p=.000$), 피임태도에 대해서는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t=-4.212, p=.000$).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1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성경험 특성에 따라 피임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전공계열($F=2.76, p=.045$)에 따라 피임태도에 차이를 나타냈고, 여학생의 경우는 종교($F=5.97, p=.001$), 성경험 유무($t=-2.11, p=.037$), 피임여부($t=-2.11, p=.011$), 성교육 횟수($F=2.75, p=.032$)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학생은 전공계열($F=3.78, p=.032$), 월수입($F=2.54, p=.040$), 성경험 유무($t=-2.52, p=.012$), 성교육 횟수($F=2.95, p=.021$)에 따라 피임태도의 차이가 있었다. 임복희 등(2018)의 연구에서는 성별, 전공계열과 거주형태에 따라 나타났고, 허명행 등(2007)의 연구에서는 성별에서 차이를 보였다. 최정현 등(2010)의 연구에서는 성

별과 나이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피임태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특성은 모든 연구에서 성별이 일치하게 나타났다[2, 3].

또한, 대상자의 성관련 노출정도, 성관련 의사소통, 주관적 규범, 성태도와 피임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r=0.19, p=.039$), 여학생의 경우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적을수록 피임태도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이었다($r=-0.26, p=.005$). 음란물 접촉의 정도가 높을수록 혼전 성관계의 빈도가 높다는 박현숙 등(2011)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우리나라 대중매체 속의 성은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이 묘사되고 있어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성행위를 이끌어 내므로 긍정적이고 올바른 성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내어 보급하는 것이 긍정적인 피임태도 형성에 시급하리라 생각된다[7]. 그러나 주관적 규범은 황신우(2013)의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피임태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하였다[7]. 피임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보를 얻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주변인의 담론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므로 실제 피임실천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어야 주관적인 규범 점수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더 고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인들이 피임에 대해 강조한다면 주관적 규범의 점수가 높아져 긍정적인 피임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남학생의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규범이 3.6%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여학생은 피임여부, 성교육 횟수,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가 피임태도에 25.5%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남학생은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인을 통한 성교육 및 성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피임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는 긍정적이고 올바른 성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교육 및 성상담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피임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피임실천률을 올리기 위해 피임태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통해 피임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성교육 및 성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제언한다.

References

- [1] KCDC. Women's Health 2016 Stats & Facts in Korea. pp. 31-36, 2016, Available From: <http://www.cdc.go.kr/CDC/cms/cmsFileSeDownload.jsp?fid> (accessed November 2016)
- [2] M. H. Hur, H. Y. Ahn, E. A. Kwak, K. M. Kim, J. Y. Park, J. R. Lee,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37, no. 3, pp. 267-275, 2007. DOI: <http://dx.doi.org.libproxy.knu.ac.kr/10.4040/jkan.2007.37.3.267>
- [3] J. H. Choi, K. E. Kim, M. A. Shin,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Contraceptive Use among College Students: Function of Gender, Age, and Residenc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9, no. 3, pp. 511-522, 2010. DOI: <http://dx.doi.org.libproxy.knu.ac.kr/10.5934/KJHE.2010.19.3.511>
- [4] B. H. Im, J. Y. Park, "The Effects of Contraception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ived Risk on the Contracept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9, no. 4, pp. 1621-1635, 2018. DOI:<http://dx.doi.org/10.22143/HSS21.9.4.112>
- [5] M. J. Kim, "An Explanatory Model on Behavior of Contraception of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 7, no. 2, pp. 141-156, 2001. DOI: <http://kiss.kstudy.com.libproxy.knu.ac.kr/thesis/thesis-view.asp?key=1814583>
- [6] H. S. Kang, S. B. Chang,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Condom Attitude Scal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 34, no. 5, pp. 757-759, 2004. DOI: <https://doi.org/10.4040/jkan.2004.34.5.751>
- [7] S. W. Hwa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ntraceptive Behaviors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8] I. Ajzen, M. Fishbei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 H. J. : Prentice-Hall, 1980,
- [9] S. H. Cho, "A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Dating and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5, pp. 137-160, 2012.
- [10] M. R. Jung, *Sexual behaviors, attitudes and autonomy of unmarried coupl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11] Y. J. Kim, "The Effects of Contraceptive Education Program on Contraceptive Knowledge, Attitude and

- Self-effica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0, pp. 246-255,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246>
- [12] K. N. Ki, *The effect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contraception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on their contraceptive intention*,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Korea, 2018.
- [13] G. Y. Lee, I. O. Sim, “Factors Affecting Sexual Experiences of Freshmen in College”, *Th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 34, pp. 159-182, 2013.
DOI: <http://dx.doi.org/10.4069/kiwhn.2013.19.3.166>
- [14] H. S. Park, S. Y. Jung, “Validation of a Path Model to Prevent Sexual Risk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0, no. 1, pp. 49-60, 2011.
UCI: G704-001695.2011.20.1.007
- [15] K. Heiser, D. M. Van Eron, “A descriptive study of Undergraduate Contraceptive Attitudes among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Honors Theses and Capstones*, 8. <https://scholars.unh.edu/honors/8> (accessed Spring 2012)

김 현 영(Hyun-Young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학, 성인간호학